

사 설

이번 한국통신 사태에 대한 현 정권의 대응은 집권초기부터 내세운 문민정부를 의심케하고 있다. 조계사와 명동성당의 공권력 난입에 대한 종교계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5일 저녁에는 2천여 불자들이 시국법회를 갖고, 국경 최고책임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6월16일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개 종교단체의 성직자 4백여명이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행진을 벌였다.

이러한 종교계의 여법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반응은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다. 6월16일 오

자제만을 전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권력과 종교는 때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정치,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가적 관계 속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파시즘을 탄생시킨 법실증주의적 법률관념주의에서 나온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와 양심을 존중하는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와 사랑의 인식적인 성소는 존재해야 하며, 민주사회일수록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닫힌 독재체제보다 오히려 열린 민주체제 속에서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곳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부처님의 정법인 출세간법이 세간법의 악법적인 요소나 남용을 막

성역유린 정부 참회를

후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 노조 간부 연행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읽고 종교계는 그동안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커녕, 군사독재시대의 구타의연한 흔적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6·6 공권력 투입의 일연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교회나 사찰이 (치외법권지대)나 불탑부흥의 안전지대'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길 종교계에 부탁한다'는 내용이 잠자해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현 정권은 (문민과 (민주)의 틈을 쓰고 종교계의 전통과 교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도 "정부 최고책임자는 청정도량인 사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강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질책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권위주의적

아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종교계가 현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등을 돌리기 전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지심으로 참원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진실로 깊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접할 단절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대이상 이번 한국통신사태로 빚어진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이 심화되어 배방 끝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이 유린되어 '문민독재'의 징후가 보인다는 특박소리에도 경계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번다시 6·6 사태와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정부 지도자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은 애타게 듣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시점은 정부와 종교계가 손에 손을 잡고 복지사회건설에 매진할 때임을 간과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열린 마당

개발 공약 남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개발, 개발, 개발을 외치고 있다. 대부분 득표를 의식해 내놓은 선거공약은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후보들이 다루어 내놓은 개발 공약으로 인해 사찰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운산스님



금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환경을 훼손하는 선심용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의 땅은 대부분 불교문화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훼손은 불교문화훼손

지훈스님



요즈음 불교계는 가야산 골프장 허가 취소, 범어사 앞 아파트 건설 반대 등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의 소중함을 현 시점에서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일은 '소양고 외양간 고치기'가

'무조건 개발 하자' 생각버려야

으로 연결되고 민중문화의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가능하다면 현상에 보존에 주력하고 필요에 따라 조화있는 발전만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성사가능성은 뒤로 미루어 채 무조건 환경공약 남발하는 후보자에게 있다고 본다.

사회지도자가 되려면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야 한다.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사심없이 공약을 받든 자제가 되었을 때 무분별한 공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주민들도 집단행동이나 사형심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인물의 참신성을 보고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겠다. 자연보호는 결국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실상사 주지)

사찰주변 골프장·아파트 부당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진행됐던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악하여 미리 막았던 현재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각종 개발 공약을 접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를 좋은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에는 10여년 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를 뺏어버리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다시 오늘날처럼 사찰주변에 골프장, 아파트가 들어서서 어리석음이 없도록 해야겠다. 현명한 주민들이 되어 아름다운 이 강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문창식씨



한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자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나라 자연의 모습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또한 그 나라 정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민 모두의 공유재인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허가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 나라에는 상식이 존

김문숙씨



한국선거제도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만큼 정책공약을 나열해 놓은 선거도 없는 것 같다. 환경이라는 전 시민의 가장 중요한 공동재산을 지켜야 할 일선의 행정책임자인 부산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환경정책이 실효성도 없는 전신평의 수준인데 우리는

선거용 개발 자연환경파괴 가속

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위해, 또한 가진 자들의 놀이거리를 위해 우리의 국립공원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수천년의 역사와 역사는 한순간에 깔그리 무너져 버려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실로 사람답게, 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개발논리와 지역발전논리로 치장하고 있다.

지자체로 인해 우리 환경이 더욱 황폐화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이 온전히 보존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토양인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자단체장은 환경보존 책임자

실망한다. 대체에너지 문제, 녹지공간 문제, 해양오염문제 등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를 적극 내놓고 있지만 만성적지에 허덕이는 부산시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희망사항일 뿐이다. 후보들이 외치듯 그렇게 쉽게 낙동강을 살릴 수 있었다면 문민정부 3년은 빛나는 정부였다.

선거철을 틈타 서부산지역 최대의 종지지구인 대5지구와 인접해 있는 흥터마을 뒷편 아산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자연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인 범어사 일주문 앞에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되어야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후보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

시론 종교간 화합으로 위기극복

17세기 독일의 대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일찍이 종교합동에 의한 세계교회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그것은 당시의 루터교와 칼빈교의 통합 내지 카톨릭과 개신교의 통합을 의미하였지만 그는 중국의 주역 철학을 연구한 논리철학자로서 서구의 기독교와 중국유교의 타사상과의 통합을 꿈꾸기도 하였다.

이제 지구세계는 너무도 좁게 느껴지는 이른바 지구촌의 시대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보스니아전쟁, 체첸전쟁 등 지구촌의 인류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민족분파주의 내지 종교분파주의가 불씨가 되어 서로 무지비한 삼투전을 감행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의 환경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분파주의로 무모한 소모전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인류의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어느 하나의 보편주의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해체되어야 하고 다원적인 작은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체주의 철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양식에 입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종교가 참된 주장이나 종교이며, 다른 주장이나 종교는 사이비라는 식의 사고는 통용되지 않는다. 적어도 공인된 세계적 종교라면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교리 가운데 인류의 구원이라는 공통된 큰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현대는 국제화, 세계화시대라고 하거나 세계의 어느 사회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리 이상의 원리를 갖고 있지 않다.

종교의 본래적 기능에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운명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통합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주장들이 엇갈려 잘못하면 집단 분쟁이 일어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 인간이 지구의 환경살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너'와 '나' 구별 말아야

인간사회의 합동체제는 물질, 인적, 사회적 활동이 어떤 합동적 조직에 의해서 통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물질, 생물적, 사회적 요인의 결합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성은 개체성에 의해 보호되면서 변화하는 개체성을 끊임없이 새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성을 창발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도 각각 그 독자성을 갖고 새로운 행동규범을 창발하여 조직자체를 관리해야 한다.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인간사회의 합동체제는 물질, 인적, 사회적 활동이 어떤 합동적 조직에 의해서 통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물질, 생물적, 사회적 요인의 결합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성은 개체성에 의해 보호되면서 변화하는 개체성을 끊임없이 새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성을 창발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도 각각 그 독자성을 갖고 새로운 행동규범을 창발하여 조직자체를 관리해야 한다.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것이 밝혀지고 있다.



김용정 (연세대 교수·철학)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모순을 새로운 행동준칙의 창발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 현대의 관리체제로서 집단간의 협동을 얻어야 하는 철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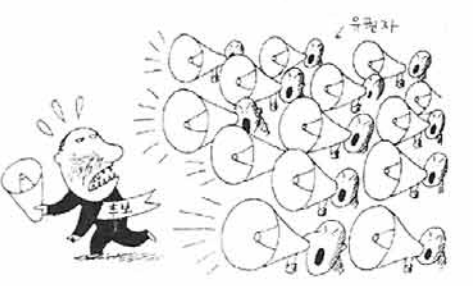
불교의 중도사상이 사회적 현상에서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양 극단을 배제하는 사상이요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면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로 극단적 주장을 양보하고 상호연명공동체라는 자각을 같이한다면 어렵지 않게 화합과 협동을 유실하여 한다는 상식적인 원리 이상을 원리를 갖고 있지 않다.

종교의 본래적 기능에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운명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의 통합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주장들이 엇갈려 잘못하면 집단 분쟁이 일어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 인간이 지구의 환경살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운명공동체 의식 갖자

한 예로서 지난번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피신한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선(善)이나 가치에도 대립이 있다. 칸트는 선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보다 큰 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어느 선이 보다 큰 선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사측이나 노조측 어느 쪽이나 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이 악이기 때문에 일어난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현대만평 박구원



냄새나는 후보들...

선거용 개발 자연환경파괴 가속

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위해, 또한 가진 자들의 놀이거리를 위해 우리의 국립공원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수천년의 역사와 역사는 한순간에 깔그리 무너져 버려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실로 사람답게, 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개발논리와 지역발전논리로 치장하고 있다.

지자체로 인해 우리 환경이 더욱 황폐화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이 온전히 보존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토양인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자단체장은 환경보존 책임자

실망한다. 대체에너지 문제, 녹지공간 문제, 해양오염문제 등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를 적극 내놓고 있지만 만성적지에 허덕이는 부산시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희망사항일 뿐이다. 후보들이 외치듯 그렇게 쉽게 낙동강을 살릴 수 있었다면 문민정부 3년은 빛나는 정부였다.

선거철을 틈타 서부산지역 최대의 종지지구인 대5지구와 인접해 있는 흥터마을 뒷편 아산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자연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산시민의 마음의 고향인 범어사 일주문 앞에도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되어야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후보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

불교 대한불교 진각종 제24대 통리원장 취임식

귀명삼보 하옵고 본종 제24대 락해(김석모) 통리원장의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코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증 명 : 종인 각해 대종사
- 고 문 : 인 강, 대안화, 안인정, 지희심, 복선정, 도 훈, 혜 일, 보인정, 모 법, 지 광, 일 정, 일성화, 영안행

— 다 음 —  
 ■ 일시 : 1995년 6월30일 오후 1시  
 ■ 장소 :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  
 ☎ (02)913-0751

- 지도위원 : 성초, 석봉, 우승
- 봉행위원장 : 휴 명  
 부위원장 : 회 정  
 위 원 : 효 암, 대 경, 덕 일, 관 증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합장